

# 출범식 대신 봉사활동...HS효성 "가치 경영 최우선"

### 2개 지주사 재편 '독립 경영' 시동...매출 7조·임직원 1만여명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 갖춘 사업 중심...글로벌 시장 돌풍 주목 권오규 전 부총리·박병대 전 대법관 등 4명 사외이사 선임

1일 출범한 HS효성이 첨단소재, 정보통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이끌고 기존 효성그룹에서 독립하면서 향후 그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면서 몸집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조2000억원을 기록한 HS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홀딩스USA, HS효성더글래스, HS효성도오다, HS효성비나리물류법인 등 HS효성그룹 전체 매출은 7조원이다. 전 세계 90여곳에 본사 및 지점을 두고 있으며 임직원은 1만여명 수준이다.

지난 6월 27일 출범식 대신 소통 행사로 그룹 공식 일정을 시작한 HS효성은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조현상 신임 대표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가치 경영'이라는 가치 아래 다양한 소통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 속에 HS효성을 각인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HS효성에 따르면 HS효성은 지난 6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재편된 효성그룹의 2개 지주회사 중 하나다.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기존 지주회사인 (주)효성을 이끌고, 삼남인 조현상 신임 대표가 HS효성을 이끄는 구도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을, 조현상 신임 대표는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그룹을 나눴다.

두 형제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와 함께 상호 독립경영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며 3개월여만에 그룹 분리를 마무리했다. 조 명예회장이 작고하면서 고인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의 상속이 이뤄지고, 그룹 분리까지 진행되면서 소유 지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장남인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증가했고,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종전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주)효성과 HS효성은 앞으로 지분 정리 과정을 거쳐 계열 분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HS효성은 지원본부장에 신덕수 전무(전 효성 전략본부 임원), 재무본부장에 이창엽 전무(전 효성 재무본부 임원)를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 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등 4명을 선임했다.

한편 HS효성은 또다른 출범식 행사로 지난달 28일 봉사활동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HS효성 나눔봉사단장인 조현상 신임 대표와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더글래스 등 임직원 30여명은 경기도 여주시의 국내 최초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을 찾았다. 이들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수확한 토마토를 가공·포장하며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효성은 푸르메재단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어린이 재활 치료비와 소외된 비장애형제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현상(앞줄 오른쪽 두번째) HS효성 신임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임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HS효성 제공)

## 고병일 광주은행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천 노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범국민적인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 속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표 또는 일반 국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을 SNS에 게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김중현 쿠른 대표에게 지목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지목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임직원의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목적으로 광주은행 캐릭터 'KJB BEARS'와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개인컵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달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재순환 캠페인을 펼쳐, 광주·전남·수도권 임직원 1700



여명이 의류, 가전, 도서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 5000여 점을 기부하고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 부문 전반적 감소

### 공공업 생산지수는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은 생산은 늘었지만, 대형 소매점 판매액과 소비 부문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지역민의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공공업 생산지수는 지난달 기준 124.4로 전년 동월(113.5) 대비 9.6%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18.2%), 자동차(-3.0%), 식료품(-7.0%) 등이 감소했지만, 기계장비(31.3%), 전기장비(24.2%), 담배(25.7%) 등이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7로 전년 동월(111.9)보다 8.3% 감소했다.

지역 대형소매점 중에서는 백화점 판매가 1년 새 15.2%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는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민들이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하는 고가의 제품보다는 대형마트에서 식재료 등 필수품 위주로 소비가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의 지난달 공공업 생산지수는 108.8로 전년 동월(102.9)에 견줘 5.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수리가 77.7%로 가장 많이 늘었고, 기타운송장비(62.0%), 화학제품(7.8%) 순이었다.

지난달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4.6% 감소한 93.6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대형소매점에서는 오락·취미·경기용품만 5.9% 증가했고, 의복(-13.6%), 기타상품(-12.0%), 가전제품(-7.2%), 신발·가방(-4.1%), 화장품(-2.7%), 음식료품(-1.6%)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우울...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하락

### 광주 152개 업체 조사 4P 하락

지역 제조기업들의 3분기 경기전망이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기준치를 밑돌았다. 지난달 30일 광주상공회가 지역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전분기(101)보다 4포인트 하락한 '97'로 집계됐다. BSI 수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BSI는 올 2분기, 2022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지

만, 또다시 100 아래로 추락했다. 광주상의는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더딘 소비심리 회복과 지정학적 분쟁상태, 불확실한 금리·환율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BSI가 가장 많이 하락한 건 '유리·시멘트' 업종으로 2분기 138에서 78포인트 하락한 60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에 돌입하는 건설업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음료'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고물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여파로 55포인트 감소한 75를 기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부품'(78)과 '철강·금속'(61)도 100을 밑돌았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3분기 BSI는 6포인트 하락한 '88', 중소기업은 99로, 전분기 '102'에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도 제조업은 77.2로 전월(77.4) 대비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남도장터 이달부터 두 달간 수산물 30%까지 특별할인

전남도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7월부터 두 달간 수산물을 30% 파격 할인해주는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항 부진과 고물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해 마련한 특별 기획전이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220여개 업체의 1400여개 수산물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두 달 동안 30% 파격 할인가에 판매한다.

할인상품은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남도드림 바다직송' 코너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장어·전복·김·미역·멸치 등 다채로운 수산물을 30% 할인가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최대 3만원 한도)이 매주 1인 1매씩 제공된다. 행사기간 2개월 동안 매주 할인상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7만원을 할인받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남도드림 바다직송' 기획전 등 수산물 판매촉진과 어업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글로벌 B2B 플랫폼 '트릿지' 전남식품관 운영 전남농수산물식품 기업 입점·글로벌 마케팅 지원

### 입점 희망 20개사 5일까지 모집

전남도는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트릿지' 내 전남도 전용 식품관을 개설하고 전남 농수산물식품 기업들의 식품관 입점과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트릿지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글로벌 자사를 보유하고 60만 이상의 B2B농식품 유저를 확보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된 유니콘 기업이다. 전세계 농수산물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수출입 정보 제공 및 B2B 소싱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월간 200만 유저가 방문하는 '데이터 기반 농수산물마켓플레이스'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기업을 프로모션하고, 25만 바이어들이 열광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입점사들이 데이터 기반 수출 확대에 나서도록 농식품 전문 트레이더의 교육 세션도 진행한

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요한 거래 기회를 발굴한 기업에는 후속 B2B 거래 컨설팅을 제공해 신시장 개척의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트릿지 내 10개사를 입점 지원해 전남도 식품관 개설 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기간 다양한 국가에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5차례에 걸쳐 배포한 뉴스레터는 440만 명 이상 열람했으며, 운영 기간 34만 유저가 전남관을 방문해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품 및 제품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시범운영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7월 5일까지 20개사를 추가모집해 트릿지 전남식품관 입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농수산물식품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신청 공고 및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광주신세계는 오는 7월 25일까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전에 선발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유통업계에 관심있는 지역 대학생은 실무를 경험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에 선발된 전남대, 조선대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백화점 매장업무에 투입돼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는 등 실무경험을 쌓고, 인사·총무·경리부터 마케팅 전반에 이르는 백화점 업무를 전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멘토링과 점점 직무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마지막 주에는 모의면접까지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참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습득 뿐만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서(23) 전남대 학생은 "전 기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됐는데 최종 선발된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현장

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향후 진로 선택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회사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들을 얻고, 학생들은 경험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을 지속 운영해, 추후 지역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2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5	9	11	37	40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2,386,382,421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8,077,302	91
3	5개 숫자일치				1,404,957	3,114
4	4개 숫자일치				50,000	157,300
5	3개 숫자일치				5,000	2,626,764